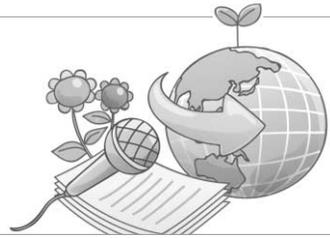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유엔)

세계 AI 강력 대처한 모범국가 한국과 영국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퇴치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난 6월 17일 밝혔다.

유엔 AI 수석조정관인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는 이날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여러 국가들이 수의학 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여 가금류를 둘러싼 방역문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병한 AI에 강력하게 대처한 모범 국가로 한국과 영국을 꼽았다.

- AFP.로이터

한국

‘천연기념물’ 연산 오계 7,150마리 두달만에 귀환



조류인플루엔자(AI)를 피해 피난살이를 떠났던 연산 오계(烏鷄)들이 지난 23일, 두달 만에 모두 무사 귀환했다.

우리나라의 재래종 닭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기념물(265호)로 보호받고 있는 연산 오계는 AI가 확산 일로를 치닫던 지난 4월 16~22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보금자리를 떠나 반경 3km 이내에 양계 농가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피난길에 올랐던 연산 오계는 종계 1,150마리와 병아리 6,000마리 등 모두 7,150마리였다.

연산에서 6대째 연산 오계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승숙 지산농원 대표는 “정부가 AI 발생에도 오계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긴급 대피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세계일보

미국

美 농업연구청, AI 유전체 서열 해독

지난 5월 30일 미국정부, 기업, 대학 연구자들이 150개의 다른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Avian Influenza)의 완전한 유전체 염기서열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 발표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켰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 농업연구청



(ARS) 남동부 가금연구소(SEPRL)의 희귀조류 바이러스연구단의 책임 연구관인 수아레스(David Suarez) 박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연구 성과”라고 밝혔다.

농업연구청(ARS)은 미국 농무부의 핵심 연구기관이고, 수아레스 박사는 ARS산하 남동부 가금연구소(SEPRL)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보존 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미 농업연구청은 이번 염기서열 정보를 통해 닭, 칠면조, 오리 등의 여러 가금류에 감염 및 발병하는 바이러스 간 차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것이며, 염기서열과 생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에 병을 일으키는 기작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美 농업연구청

중국

홍콩, AI차단 위해 가금류 거래권 회수 제안

홍콩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1천300억원을 들여 아예 가금류 거래면허를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홍콩 언론이 지난 6월 22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최근 양계농장과 닭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반입된 생닭을 하루내에 도살할지, 보상금을 받고 생닭 관련 업종을 폐업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정부의 보상액은 자진 폐업하면서 면허권을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의 3배로 업계 전체에 10억 홍콩달러(약 1천319억원)가 제시됐다. 이 경우 양계장당 1천500만 홍콩달러, 도매업체당 500만 홍콩달러, 소매업체당 100만 홍콩달러씩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업계 노동자 2만5천명도 3만5천 홍콩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홍콩에는 모두 50개의 양계농장과 71개 도매업체, 469개 소매업체 등이 있다.

이번 제안은 5월초 홍콩의 닭시장에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량 살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뒤 나왔다. 하지만 가금류 거래업계 대표는 정부의 제안을 일축하고 당국자와의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항의 시위 뿐 아니라 닭을 홍콩 도심에 풀어놓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7월 2일까지 업계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홍콩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입된 닭을 산채로 하루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신선함을 위해 닭을 즉석에서 도살, 요리해 먹기 좋아하는 홍콩인들의 식문화에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AFP